

전문가 칼럼

윤리경영과 경영진의 역할



장대철(KAIST 경영대학)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서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리경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윤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청렴 기준을 강화하면, 또는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조직윤리의 문제이다. 매출을 확대시키거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관행으로 둔갑하거나 조직의 압력에 의해서 묵인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돈을 버는 한 어떤 방법도 괜찮다는 조직 문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매일 보는 같은 부서 또는 같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행동을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심지어는 동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문화적 윤리의 문제는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계층적 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다. 현재 많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영진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경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기업 윤리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은 윤리경영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이고 윤리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솔선수범은 투명성에서 나오게 된다. 경영진의 투명성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럼, 기업의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과 리더의 역할을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윤리경영을 잘 하는 부하들을 칭찬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은 말이 아니라 성과지표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윤리적으로 행동을 할 때 아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즉 청렴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행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다. 윤리적인 조직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둘째, 경영진은 윤리경영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매출을 위해서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직이 윤리경영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비용을 쓰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을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이와 함께 윤리경영 이슈는 대부분 부서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결국 전사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이 이러한 윤리 경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즉, 윤리적인 문제는 전사적인 조정의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면, 법무부서에서는 판매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마케팅 부서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설정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전자업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업계는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자업체들은 협력사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어 노동자 인권 보호, 분쟁광물, 공정경쟁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전자제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자업체들은 윤리적 방식으로 생산·유통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품 생산 방식 및 기업 경영 방식에 있어 윤리경영 실천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이슈 1. 제품 생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 인권경영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조립 과정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자업체들은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세우거나 개발도상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있는 만큼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부당한 임금 지급,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노동자를 상대로 한 비윤리적 행위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업체들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협력사의 윤리경영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사례] 국내 전자업체, 외국업체 비해 인권경영 뒤쳐져

국내 전자업체들이 다른 글로벌 전자업체들에 견주어보았을 때 인권경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부 전자업체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노동권 보장의 핵심 기준인 '결사의 자유'나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 외국업체는 2013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유엔인권선언, 유엔글로벌컴팩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보이며 전자시민연대의 강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또 다른 외국업체 역시 2013 지속가능보고서에서 노동 관련 준수 사항은 유엔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제적인 윤리와 노동법을 따르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글로벌 전자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에도 가입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빠져 있어 국내 기업들도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이슈 2. 글로벌 기업윤리 쟁점으로 부상한 '분쟁광물'

글로벌 전자업체들 사이에서 '분쟁광물' 사용 여부가 기업 윤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분쟁 광물이란 분쟁 지역이나 인권 탄압 시비가 일고 있는 지역에서 무장 단체의 자금원으로 생산되는 광물을 말한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제품 생산에 이러한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전자 및 IT 기업들에 대해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 광물을 제품 제조에 쓰지 말라고 촉구해왔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무장단체나 군벌이 전자부품 공급업체들에 이 분쟁광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기업들도 분쟁광물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례] 19% 불과한 분쟁광물 인증 제련소

국내 한 전자회사의 납품 협력사들이 대부분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분쟁 광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자회사의 납품업체들이 217개 제련소에서 주석, 텅스텐 등 4대 광물을 공급받은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들 제련소의 상당수는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을 받지 못한 곳으로, 인증받은 제련소는 19%인 41개 사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는 미인증 제련소의 인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최신 인증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분쟁광물 업체로 지정되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납품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슈 3.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동반성장

앞서 분쟁광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사의 윤리경영에 심혈을 기울인다 해도 협력사의 윤리경영을 돌보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서로 윈-윈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혼자보다는 이해관계자,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다.

[사례] 협력사 상시 지원체제 구축으로 동반성장

국내 한 전자업체는 협력사를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자기혁신, 경쟁력 있는 협력사 선별, 넘버원 목표 설정, 상호협력, 소통과 신뢰 등의 원칙하에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품목별로 일등 협력회사 육성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협력사 지원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상담소'를 운영하며 협력사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의 목소리를 듣는 정기적인 VOS(Voice of Suppliers)를 통해 신뢰를 쌓고,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협력사와 윤리경영을 함께 실천해나가는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 이슈 4. 전자업계의 공익 창출 제품 생산

전자업계는 다른 업종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재능기부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업계는 이제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만을 위한 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례] 분쟁광물, 노동 착취, 환경오염 없는 착한 스마트폰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정 무역' 개념을 스마트폰에 적용한, '페어폰(Fair Phone)'이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 페어폰의 '착한 스마트폰'인 페어폰은 제품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페어폰은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민주공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군 조직과 무관한 주석·탄탈륨 공급처를 개척했다. 페어폰은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생산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어폰은 e쓰레기 근절을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환경단체 '클로징 더 루프'와 손을 잡고 버려진 휴대폰을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보냈고, 수익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들이 버린 휴대폰을 수리해주시기도 했다.

◎ 이슈 5. 전자업계의 윤리경영 자정노력

고객들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전자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윤리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일정 정도 표준화된 의무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 공헌에 참여하여 윤리적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사례] 전자업계 CSR 강화하는 전자산업시민연대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연대인 '전자산업시민연대'에 가입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자산업시민연대는 2004년 출범하여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전자업계의 글로벌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에 최소 1차 협력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80여 개 기업들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가입한 기업은 전자산업시민연대가 제안하는 노동, 윤리, 환경,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의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사례] 전자업체, UN 에볼라 퇴치에 스마트폰 2천대 기부

국내의 한 전자업체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기부했다. 본 기업이 전달하는 스마트폰은 유엔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하는 보건 인력 및 아프리카 현지 의료진이 사용하게 된다. 현재 관련기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이 넓은 데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별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해 '유엔인도지원조정국' 본사와 아프리카 오지 곳곳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사이의 의료 데이터 취합, 현지 상황 모니터링, 대응책 논의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에볼라 확산 방지 및 근본적인 퇴치에 기

◎ 결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전자업체의 윤리경영은 해외업체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비교해 보면 발전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노력,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자업계의 윤리경영 이행 의지가 꾸준히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자기술만큼이나 전자업계의 윤리경영 또한 그 빛을 발하리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2056.html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1009193839924&outlink=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4/2014021402940.htm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8284>

<http://news1.kr/articles/?19121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22136495&code=970100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808010001196000076

0

윤리경영 스토리

윤리적 리더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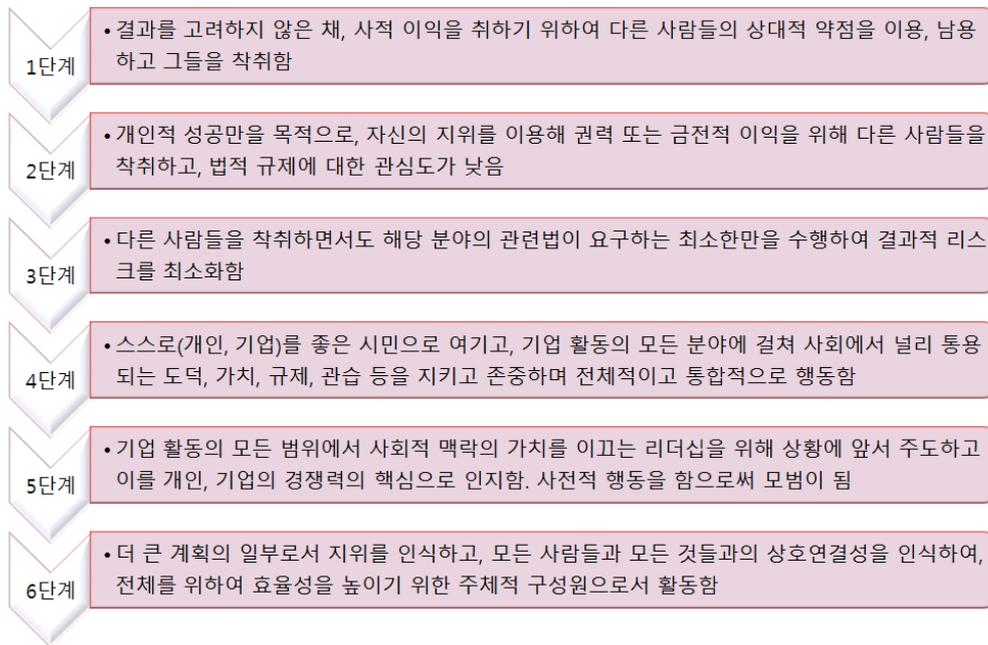
이번 호 윤리경영 스토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경영진 및 CEO의 윤리경영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자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부도덕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시점인 듯하다. 비즈니스 이슈를 다루는 Performance Journal이 2013년 발간한 '윤리적 리더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산(Ethical Leadership: A Legacy for a Stronger Future)' 보고서는 리더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다루었다. 모든 것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들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과거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 기업의 윤리적 리더십이란?

윤리적 리더십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조직의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의 균형을 맞추어 기업과 리더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안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리더의 의사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까지도 망라하는 개념이다. 지위가 높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에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지위가 높은 리더일수록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드니 공과대학교 경영대학의 텍스터 던피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윤리적·윤리적 리더의 행위 단계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리더가 되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윤리적·윤리적 리더의 행위 단계>



던피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4, 5, 6단계의 리더가 윤리적 리더에 해당한다. 반면, 1, 2, 3단계의 리더들은 윤리적 리더라고 볼 수 없다. 윤리적 리더들은 삶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한 주체성, 가치, 도덕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 이러한 가치는 문제 해결, 자신과 타인을 개발하는 능력 등 그들이 선택을 내리는 데에 사용된다. 6단계에 가까운 리더일수록 리더십은 훨씬 더 윤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리더의 도덕적인 스타일이 기업 윤리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가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중요한 유산을 조직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 윤리적 리더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윤리적 리더가 궁극적으로 조직의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될 것이다. 최근에 왜 이토록 리더의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 것일까? 어쩌면 거의 매일 조직의 업무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는지 시험하는 테스트에서 실패한 리더들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윤리적 요소가 아직 많은 기업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목록에는 윤리적 리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나타나 있다.

<윤리적 리더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리더가 지배구조 체계의 설립과 기능,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 리더가 이러한 체계들이 기업이 직면한 이슈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가?
- 리더가 이러한 체계로부터 피드백과 조언을 받아들이는가?
- 리더가 동료들의 정직한 피드백을 활발히 탐색하고, 동료들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리더에게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 리더가 팀의 비판과 의문 제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 리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제안에 개방적인가?
- 리더가 조직 내에서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을 활발하게 지원하는가?
- 리더가 조직의 가치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명확하게 소통하고, 이러한 가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 리더가 가치를 실현하고 솔선수범하는가?
- 기업이 적절한 익명 피드백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는가?

앞서 윤리적 리더십의 정의와 윤리적 리더의 단계별 행위, 윤리적 리더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윤리적 리더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과연 어떤 리더가 기업의 윤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ERC(Ethics Resource Center)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 '윤리적 리더십: 리더가 분위기를 조성한다(Ethical Leadership: Every Leader Sets a Tone)'를 소개하고, 기업의 리더들이 윤리 문화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살펴보려고 한다.

<윤리적 리더십: 리더가 분위기를 조성한다>

연구를 위해 수행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ERC는 경영자의 행동과 직원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윤리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라는 점이다. 직원들은 주로 세 가지 요소로 리더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그들의 리더의 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 ① 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한 리더의 전반적인 성격
- ② 고위 경영자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 ③ 리더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채택한 정책과 절차

◎ 관리자도 CEO만큼이나 윤리적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 문화가 기업 내 상위 위계로부터 확산된다는 사실은 CEO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행동의 모범이 되고, 약속을 지키고, 기업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관하여, CEO나 다른 고위 중역들만큼 직속 관리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행된 조사에서 직원 5명 중 2명은 상위 리더 중 누구로부터 윤리적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에 직속 관리자를 선택하였다. 또한, 리더가 윤리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직장에서 비윤리적 행위의 비율이 낮고, 규칙 위반이 적고, 직원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윤리적 리더십은 '24시간-7일'이다

윤리적 리더십은 24시간 계속되는 일이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는 리더의 사적 행동도 업무에서 하는 일만큼 중요해진다. 리더가 24-7(하루 24시간, 주 7일)의 진실성을 보여줄 때, 직원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노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리더들은 항상 기업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윤리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권고안

기업은 리더의 개인적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경영자들과 직원들이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RC는 기업들에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경영자를 고용할 때 개인적 성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리더는 24-7의 진실성을 보여주라
-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사적인' 행동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관리자를 교육시키라
- 리더들은 직원들과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로부터 정직한 피드백을 받으라
- 매년 윤리적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을 검토하라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리더들은 기업 내 윤리적 문화 확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윤리적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더 신중하고 투명한 경영을 펼쳐야 기업의 전반적인 윤리 리스크 감소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윤리적 리더십을 위한 전략

윤리적 리더십은 기업의 이사회 즉, 위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1990년대 이후로 비윤리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윤리 위원회를 설립하는 기업들이 증가했다. 기업 내 윤리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또한 조직 자체의 원칙과 정책, 지배구조, 행동 등에 따라 받아들여진 가치는 기업 내 모든 리더들 사이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윤리적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취할 수 있다.

<윤리적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

- 기업 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기업 행동강령과 운영 절차의 기준 채택
-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와 분과 위원회 설치
- 윤리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실행
- 내부 회계 감사와 같은 조직 내 정기적인 윤리 점검 수행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있어 피고용인과 면접관이 윤리를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
- 고위 직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윤리 평가와 피드백을 주는 메커니즘 제공
- 잠재적인 비리를 보고할 수 있는 윤리 상담소 설치 및 홍보
- 조직 내 비리를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프로세스 설치
- 고위 직원들에게 그들의 결정이 윤리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 교육
-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이 리더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결어

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가치를 훨씬 넘어서 더 넓은 사회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인류의 전반적인 진보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윤리적 리더들은 기업의 확대된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조직 내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Ethical Leadership: Every Leader Sets a Tone (2014. 12/Ethics Resource Center)’

‘Ethical leadership: a legacy for a stronger future (2013. 5/ Performance)’

동향 & 소식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최근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를 소개하여 기업들이 윤리경영 동향에 발맞추어 대응하도록 돕고자 한다.

국 내

중소기업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 요지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꼽았다. '익명제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대기업이라는 '갑'의 횡포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했던 중소기업에 안전하게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도록 담당 조사 공무원이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및 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량 축소 등과 같은 보복조치나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시정조치 후에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27429>

감정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들 증가

최근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수 사례로 꼽힌 A기업은 고객 항의가 잦은 서비스센터에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 합니다'라는 문구를 걸어 놓았다. 특히 A기업은 고객 불만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항의가 격하게 일어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매뉴얼도 만들었다. 또 A기업은 매년 한 차례씩 감정노동 직원들에게 우울증 테스트와 직무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도록 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B기업은 정신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무인 검진기를 직원 탈의실에 설치해 직원들이 언제든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기업들이 감정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41219/68628954/1>

코이카 조달사업, 벤처·중소기업에 '문턱 낮춘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문턱은 낮추고, 책임을 강화한' 원조 조달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연간 발주계획 및 사전 공고제도를 정착시켜 협력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구호 물자를 포함한 해외원조 물류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거래 관계에서 파트너십으로 계약관계를 전환하고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사업수행 평가를 도입해 부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책임은 강화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2/19/0302000000AKR20141219049700371.HTML>

2015 다보스포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발표

포스코와 삼성전자, LG전자, 신한금융 등 4개 한국기업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제45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 1월 21~)에서 지속가능한 10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지속가능한 100대 기업은 캐나다 경제전문지 코퍼릿나이즈가 다보스포럼에서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큰 10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며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경영 현황뿐 아니라 세금 납부, 효율적인 탄소배출 관리, 안전사고, 여성 임원 등 요소가 두루 반영됐다. 코퍼릿나이즈는 "지속가능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실제 성과가 우수한 기업만큼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각국의 정책이 이번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6992§ion=sc2

해 외

CSR의무화 인도, 첫해 실적 기대이하 예측

인도는 지난 2013년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회사법 개정안을 공시했다. 순자산 규모 50억 루피(869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1,769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8.7억원) 이상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직전 회계연도 3개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지난해 4월부터 발생했음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해당 기업이 순이익의 2%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유만 공시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뜻 나서기보다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서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부는 기업들이 2년 이상 회사법에 무책임하게 대응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86

종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전자문서 이용 확산

최근 일반 기업은 물론 영화관, 각종 공연, 철도예매 서비스 등 종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종이 문서로 출력을 하면 회사의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페이퍼리스 환경에서는 이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종 이들이 불필요한 사무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가 필요 없어 친환경 경영 실천을 돕기도 하다. 이와 같은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은 종이 사용 및 보관비용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계약서 분실 위험 감소, 고객 개인 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도와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문서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8687>

인도, 공인회계사 CSR 인증 코스 운영

인도 공인회계사 협회(ICAI,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India)는 최근 공인회계사 교육과정 일부를 수정하였다. ICA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코스를 만들어 회계사들이 CSR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커리큘럼은 앞으로 10년간 ICAI의 공식 교육과정이 된다. ICAI에 따르면 이미 8만5,000여 명의 학생들이 CSR 인증코스를 이수했고 인도 케랄라 주에서는 이미 1만 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들이 교육을 이수해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와 관련하여 비 윤리적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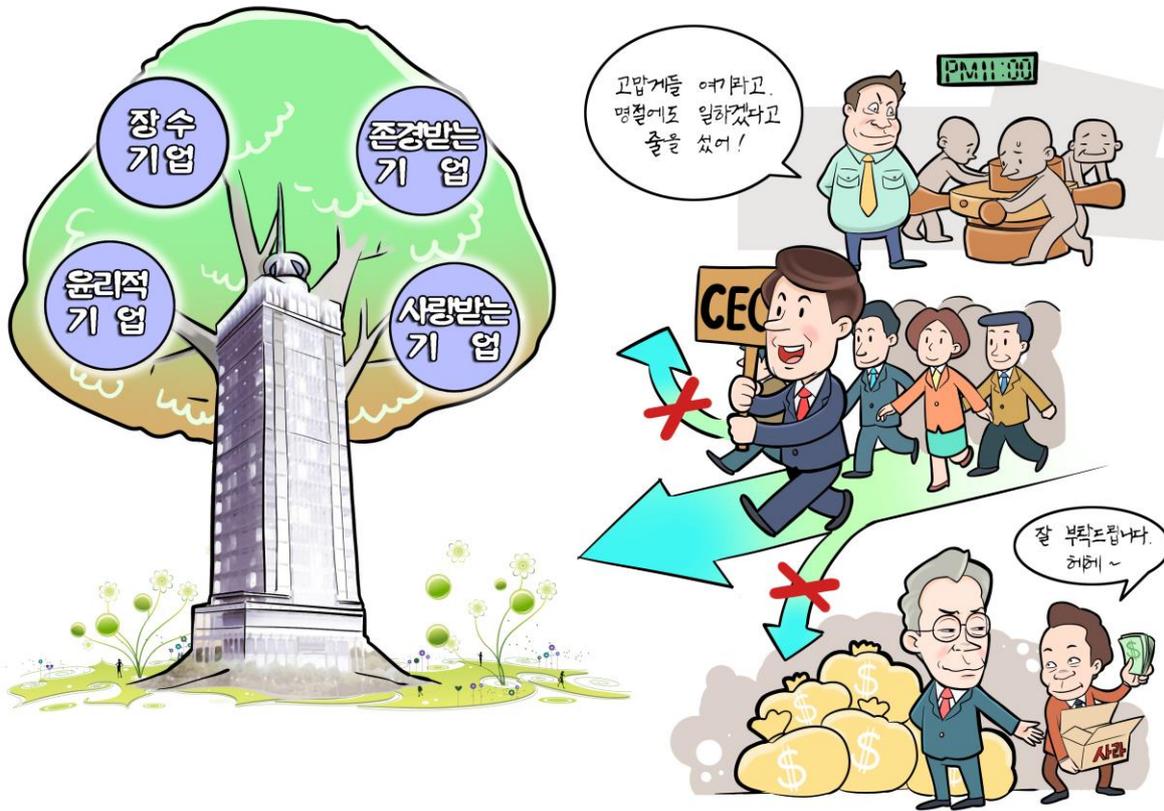
비즈니스 리더들, 에볼라 대응 위해 협력

최근 세계의 기업들이 에볼라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 11일 뉴욕에는 150명 이상의 기업, 시민 사회, 정부 및 유엔의 대표들이 '글로벌 에볼라 대응을 위한 유엔-비즈니스 협업의 효율성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토론'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재단 및 '유엔에볼라긴급대응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본 토론은 에볼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증대 및 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50여 개가 넘는 주요 다국적 기업 및 많은 아프리카 기업들은 이미 에볼라 근절에 관한 글로벌콤팩트 '기업 행동 서약'에 서명하였다. 글로벌콤팩트는 에볼라 대응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각국 협회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617&uid=869&mod=document

감성 메시지

감성 메시지



“윤리적 리더십을 기대하며”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 받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영자들이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또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매 순간에 옳은 일을 했다면, 올미년 시작에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 대신 어떠한 뉴스가 언론과 지면을 장식했을까요? 잘못된 의사결정이 쌓이고 쌓여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훌륭한 인재를 떠나게 하며, 선진 제도와 탄탄한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기업문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찬 윤리경영의 발걸음으로 건강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글로벌 리포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국가별 윤리경영 장려 제도,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여 윤리경영 노력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영국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신문사의 휴대전화 해킹 스캔들, 은행 기업들의 리보금리 조작¹과 불법 거래 등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영국에서도 윤리적 이슈가 기업 경영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 기업윤리연구소(IBE, Institute of Business Ethics)가 2013년 FTSE 350² 기업의 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기업의 68%는 최근 3년간 기업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기업 모두가 기업 내 윤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96% 응답기업은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영국 기업들이 윤리경영 노력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국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환경오염의 주범에서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

영국의 정유기업인 셸은 한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기도 했지만, 현재는 CEO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의 모든 활동과 연관되도록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지역의 단위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 과도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모든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영국의 뇌물수수법

영국은 뇌물수수법(Bribery Act)을 제정하여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 뇌물죄와 해외 뇌물죄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는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 외에도 영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¹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가 2008 년 은행 간 단기 금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를 조작한 사건

²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자본 규모가 가장 큰 350 개 기업

<영국 뇌물방지법>

구분	내용
발효	2011년
범죄행위 규정	-일반 뇌물범죄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불이행
제재	-최고 10년의 징역 -무제한의 벌금

따라서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세계에서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부패방지법으로 꼽힌다. 영국 기업은 자사와 협력하는 에이전트 또는 계약자 같은 제3의 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한 관료 뇌물 혐의가 자사의 사업 취득, 유지,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뇌물수수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국 기업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뇌물수수 적발 시에는 무제한적 벌금에 최고 10년 형과 정부조달 참여금지, 이사회 자격 박탈, 자산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2014년에는 기업의 자진신고 등 법적책임 감면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 영국의 CSR 정책

영국의 CSR 정책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될 정도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정부, 기업, NGO, 노동 등의 사회 각 구성원들로 구성된 CSR 아카데미를 통해 CSR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에 노력해 왔다.

<영국의 윤리경영(CSR) 관련 정책/법>

CSR 정책	주요 내용
International Strategic Framework	- 글로벌 CSR에 대한 영국정부의 목표, 우선권, 주요 내용의 프레임워크
Securing the Future	- CSR의 이슈와 폭넓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국가 지속가능성장 전략
DFID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부)의 CSR 접근 설명 - 빈곤 구제와 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강조

CSR 관련법	주요 내용
Companies Act	- 영국의 기업법을 개혁한 법 -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의무적 보고
Pension Disclosure Regulation	- 영국의 모든 연금 자금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법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그 결과, 세계 최초로 CSR차관(차관보급)을 임명하였으며, 2008년에는 '과실치사에 관한 기업책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기업책임법은 이전에 비해 기업이 책임지는 요건은 완화되고 책임의 수위는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영국은 또한 연금기금 운영기업에 환경, 사회, 윤리 추진 정보공개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CSR 정책은 세계 시장에서 민주적으로 영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비정부기관의 역량강화, 기업과 정부의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례: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영국 런던에 있는 버진그룹(Virgin Group)은 가장 사랑받는 영국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버진그룹이 영국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에 있어 선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위치에서 영세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등한 관계를 넘어 하청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질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어 오늘날 4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그

◎ 비영리기구의 윤리경영 실천 지원

-윤리경영 평가 지수, BITC

영국 찰스 황태자가 설립한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는 사회적 기업 컨설팅 비영리기구이다. BITC에서 만든 윤리경영 평가 지수인 'BITC 지수'는 지역사회, 환경, 시장, 직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BITC 가입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계량화한 이 지표를 참고하여 공공의 선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공익신고 장려 및 공익신고자 보호

영국의 PCaW(Public Concern at Work)는 1993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자선단체로서, 직장 내에서의 비리에 관한 문제 제기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무료 비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관련 정책과 법에 관한 교육, 공공정책에 관한 캠페인, 공익신고 관련 법령의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2014년 기준) 내부고발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영국은 2013년 공익신고법을 개정하여 내부고발자를 괴롭힌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협의 결과, 규제당국은

접수한 내부고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정부는 내부고발의 딜레마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 제공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우수사례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

'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2013)', 윤종설, 이선중, 임인선, 반호준

'한영반부패세미나-발표자료집'(국민권익위원회)

'Corporate Ethics Policies and Programmes 2013 UK and Continental European Survey'(IBE)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5/e2013051417354996380.htm>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4300000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7&aid=0000003577>

http://www.srwire.co.kr/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514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1/01/20/201101200500031/201101200500031_1.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101624>

행사 이모저모

행사 이모저모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사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개최 예정인 행사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 행사 브리핑

2014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4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그 사례를 확산하고 산업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대우조선해양건설(대기업 부문)과 희상건설(중견기업 부문)에게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많은 사회공헌 활동과 비리 사전 차단시스템 운영이 돋보였고, 희상건설은 투명한 원하도급 계약과 상생협력 부문에서 우수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에는 (주)금성백조주택, (주)화성개발, 동우건설산업(주), 덕진토건(주), 대선건설(주)이 선정되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715024765400&outlink=1>

◎ 국내외 행사

COP/COE 워크숍

CSR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COP(Communication on Progress)/COE(Communication on Engagement) 작성 방법 안내, COP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참가사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원

-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2월 13일(금)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_id=2386&uid=872&mod=document

2015년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의 주요 쟁점 설명회

기업들이 공정한 노무관리를 통해 노사협력을 이끌어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5년의 노무관리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회 개최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 일시 : 2015년 2월 10일(화)
- 장소 : 동대문구상공회 교육장

출처: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GuHubDetail.asp>

Sustainability Reporting: GRI G4 Certified Program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GRI 보고서에 대한 이해 및 CSR 보고서를 GRI 표준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

- 주최 :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5년 2월 11일(수)~12일(목)
- 장소 : San Antonio, TX

출처:

http://ccc.bc.edu/index.cfm?course_ID=5849&fuseaction=Coursecalendar.viewCourse&master=1&pageid=2450&utm_campaign=Course_GRI_20150211&utm_medium=event-listing&utm_source=justmeans

2nd Bahrain International CSR Conference & Exhibition 2015

기업, 정부, 학계, 국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CSR 트렌드와 사례를 공유하고 CSR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 주최 : BICSR
- 일시 : 2015년 2월 9일(월)~11일(수)
- 장소 : Gulf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출처: <http://www.bicsr.com/>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구독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윤리경영에서 '윤리라운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A. 윤리 라운드란 경제 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각 나라마다 표준화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국제 경제 질서에 새롭게 등장한 블루라운드(노동 환경), 그린라운드(자연 환경) 등과 함께 윤리 라운드는 21세기 들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각 국가가 정한, 혹은 여러 국가가 합의한 윤리적 기준을 기업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국제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접어들어 뇌물이나 부정부패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부패라운드(CR: Corruption Round)의 전개로 국제거래에서 윤리적 기준을 갖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윤리 라운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OECD 뇌물방지협약, UN글로벌컴팩트, ISO26000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각 국가별 법령이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서적 리뷰

이달의 책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미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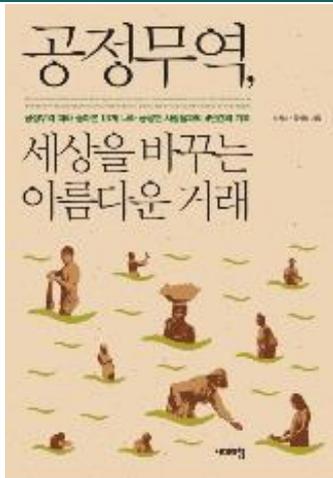


저자: 박영숙, 제롬 글렌
 출판: 교보문고
 출판일: 2015. 1. 05
 정가: 15,000원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술 개발의 역사로부터 추측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예측의 한계가 2045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2045년 미래의 변화 중 중요한 주제를 현상과 해결책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기존 '유엔미래보고서' 시리즈에서는 단순히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극적인 전략을 소개한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A파트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온난화로 인해 일어날 각종 재난재해를 예측하고, B파트에서 탄소 배출 거래제 등 온난화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답의 실마리를 되어줄 현실적인 조언들이 가득한 책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따라 돌아본 13개 나라 공정한 사람들과의 4년간의 기록



저자: 박창순, 육정희

출판: 시대의창

출판일: 2014. 1. 30

정가: 18,000원

이 책의 저자들은 공정무역 제품 생산국가인 인도, 네팔, 필리핀과 공정무역 제품 소비국가인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공정무역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회사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활동을 2부작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거래'에 담았다. 저자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인터넷에 '한국공정무역연합'이란 카페를 만들어 공정무역에 관심 있는 회원들과 공정무역에 대해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사회에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일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에 뛰어든 저자들은 이후에도 벨기에, 가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을 방문하여 많은 공정무역인과 교류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한국 사회에 공정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에스24 제공]

즐거운 윤리

Yes 준법!
Ok 윤리!

삼만원씩 내!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kyoso

자료제공 : 교보생명(그림 안중만)